MACRO VIEW

2024. 4. 26

삼성증권

Global Macro Team

허진욱
Chief Economist
james_huh@samsung.com

정성태
Senior Economist
sungtai.chung@samsung.com

양지성
Economist
jisung.yang@samsung.com

금종호
Economist
jongho.keum@samsung.com

구민정
Research Associate
mj.gu@samsung.com

Week Ahead: 5월 첫째 주

5월 FOMC preview 및 경제지표 점검

- 견고한 내수 흐름을 반영하여, 미국 성장률 전망 2.4%로 상향. 최근 미 노동시장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있으나, 향후 서비스업 고용 악화에 주목할 필요
- 5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은 물가의 추가 둔화를 확인하기 전까지 동결을 지지하지만, 추가 인상에도 신중할 것. 반면, 연말까지 동결 혹은 추가 인상 시사시, 시장 충격 예상

FOMC를 앞두고 발표된 미국 4월 제조업/서비스업 PMI 지수와 1Q GDP 등이 경기 및 물가에 대해 다소 엇갈린 결과를 보여줌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1Q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6%(연율화)로 시장 예상 2.5%를 하회했지만, 이는 변동성이 대부분 재고투자 및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 하락에 기인한다. 보다 기조적인 민간 소비, 설비 투자, 주거용 투자 등의 내수 흐름은 지난해 하반기의 과열국면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잠재 수준으로 점차 정상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당사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4%로 소폭 상향 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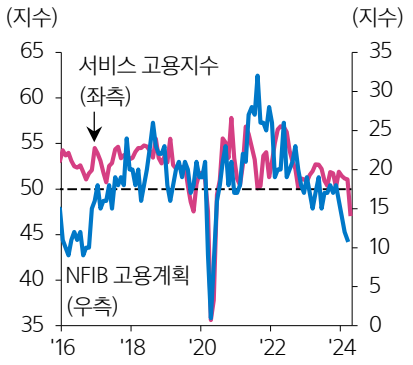
반면, 1Q GDP에서 시장에 충격을 준 부분은 1Q 핵심 PCE 물가가 전분기 대비 3.7%(연율화) 상승하여, 시장 예상 3.4%를 상회한 것이다. 이것은 1) 26일 발표되는 3월 핵심 PCE 물가가 전년 대비 기준 2월과 같은 2.8%(vs. 시장 예상 2.7%)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2) 이전의 1~2월 수치도 상향 조정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stagflation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 80달러대의 국제유가(WTI) 수준과 안정적인 기대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stagflation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지난 1~3월 중 미국 핵심 물가를 상승시킨 주된 요인들은 대부분 forward-looking보다는 backward-looking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지난 2~3월 핵심 CPI 상승의 1/3을 주도했던 자동차 수리비 및 보험료 가격 상승은 지난 '21년 중반~'23년 초까지 이어진 공급차질에 따른 신차/중고차 가격 급등이 시차를 두고 후행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 1~2월 금융서비스 가격 급등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증시 상승에 따른 운용보수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신규 임차인 기준 월세와 중고차 도매가격 등 물가 지수에서 비중이 크고 선행성을 가진 항목들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여전히 핵심 물가의 disinflation 추세가 2Q 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미국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대부분 해소

참고: Job openings to unemployment ratio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삼성증권

최근 미국 서비스업 고용악화 속도에 주목



자료: S&P Global, CEIC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최근 미국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빠르게 완화되면서, 과열되었던 고용 지표들의 쿨다운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지난 23일 발표된 미국 4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4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가 각각 49.9와 50.9(vs. 3월 51.9와 51.7)를 기록하여 시장 예상 52를 공히 하회함에 따라, 종합 PMI도 50.9로 4개월래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4월 종합 PMI 50.9는 앞서 1Q GDP에서도 언급한 대로, 지난해 하반기 중 3~4%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점차 지속가능한 잠재성장률 수준(2.0% 내외)으로 정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시장에서도 최근 핵심노동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과 이민 급증 등으로 노동공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크게 완화되면서 팬데믹 이전의 정상적인 완전 고용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과열 정도를 보여주고, 버냉키 전 Fed 의장이 인플레이션 정상화의 핵심 변수로 언급한 실업자 1명당 일자리 기회 비율(Job openings/unemployment ratio)이 최근 1.35까지 하락하면서, 팬데믹 이전의 균형 수준으로 알려진 1.2에 근접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4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세부항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비스업 고용 지수의 큰 폭 하락이다. 4월 서비스업 고용 지수가 47.3을 기록하여, 4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팬데믹 이후 미국 노동시장의 호황을 주도해 온 것이 전체 고용의 약 9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4월 서비스 고용 지수의 큰 폭 하락은 미국 노동시장 과열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지난 9일 발표된 소형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3월 NFIB 경기낙관 지수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특히 고용계획 지수가 11까지 급락하면서,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러한 고용 지표 둔화를 과열되었던 미국 노동시장이 팬데믹 이전의 완전 고용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물가 안정"과 함께 "완전 고용"도 Fed의 정책목표(dual mandate)라는 점에서, 향후 고용 지표가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FOMC는 상충하는 두 목표 사이에서 보다 절묘한 균형감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한편, 차주 예정된 5월 FOMC에서는 경제전망 수정이나 새로운 dot-plot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1~2월에 이어 3월 물가 지표까지도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사실상 파월 의장을 포함한 FOMC 내 컨센서스가 지난 3월 dot-plot에서 제시된 연내 3회 인하에서, 2회 혹은 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판단한다. 선물시장에서도 이미 9월 인하 확률이 40%까지 낮아졌고, 인하 횟수도 연내 약 1.5회까지 낮춰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의 hawkishness를 보여줄 것인가가 핵심이다.

지난 4월 16일 워싱턴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최근의 미국 물가 데이터는 인플레이션 정상화에 대한 확신이 강화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3월 7일 의회에서의 "금리 인하를 시작할 정도의 인플레이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 멀지 않다(not far)"와 3월 FOMC 기자회견에서의 "한두 달의 지표에 과민 반응하지 않겠다"는 발언과는 분명히 달라진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수개월간 인플레이션의 추가적인 둔화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예상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추가 인상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금융시장에는 대체로 중립적인 영향이 예상된다(확률 60%).

반면, 만약 연말까지 동결유지 혹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보다 명시적으로 언급할 경우, 금융시장에는 추가적인 충격이 예상된다. 이 경우, 증시 하락과 일드커브 bear-flattening, 달러 강세가 예상된다(확률 30%). 반대로 비록 궤적은 울퉁불퉁하지만(bumpy path),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점진적인 정상화라는 견해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고용 지표의 추가 악화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할 경우, 시장에는 dovish 서프라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확률 10%).

(허진욱)

Preview

주요 지역별 정책 및 경제지표 Preview

미국: 다음 주에는 4월 ISM 제조업 지수와 5월 FOMC(5월 1일), 그리고 4월 고용동향과 ISM 서비스업 지수(3일) 등이 발표 예정이다. 4월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는 각각 50.1과 52.0(vs. 3월 50.3과 51.4)로 대체로 3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앞서 발표된 S&P Global의 4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가 공히 예상을 하회함에 따라, ISM 지수도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4월 신규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25만 명 증가하여, 3월의 30.3만 명보다 둔화가 예상되나, 최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지표의 둔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시간당 임금의 경우,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0%로 추가로 둔화되면서 임금상승 압력의 정상화를 확인시켜줄 전망이다. 한편, 5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1~2월에 이어 3월 물가 지표까지도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사실상 파월 의장을 포함한 FOMC 내 컨센서스가 지난 3월 dot-plot에서 제시된 연내 3회 인하에서, 2회 혹은 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향후 수개월간 인플레이션의 추가적인 둔화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예상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추가 인상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금융시장에는 대체로 중립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유럽: 다음 주에는 4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와 1분기 GDP(30일)가 발표될 예정이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4%, 핵심 물가는 전년 대비 2.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수요 압력이 여전히 낮아 유로존의 핵심 물가 상승률은 3분기까지 2%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에너지 가격이 '23년 대비 높아지고 있고, 유럽 서비스 물가 압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유럽의 디스인플레이션은 점차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비스 물가의 둔화 정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2%를 기록해 1분기(0.0%)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당사는 유로존 경기가 바닥을 이미 통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분기부터는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유럽의 서비스업 PMI 개선, 무역 지표 개선 등은 유로존 경기가 추세적인 개선 과정에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다음 주에는 국가통계국 PMI(30일)가 발표될 예정이다. 4월 제조업 PMI는 51.0(vs. consensus 50.3)으로 3월(50.8)보다 높아지나, 비제조업 PMI는 52.2로 3월(53.0)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제조업의 proxy인 컨테이너 트럭운행 지수는 3월보다 5% 정도 높아, 중국의 제조업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신규 주택 거래는 부진하여 건설활동 둔화를 시사했으며, 언론보도를 종합할 때 해외여행 등 서비스업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음 주에는 4월 수출(5월 1일)과 4월 소비자물가(5월 2일)가 예정되어 있다.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13.7%를 예상한다(금융시장 예상은 15.0%). 관세청에서 발표한 4월 1~20일 수출은 전년 대비 11.1%를 기록했으며,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43.0%, 자동차는 12.8%, 석유제품이 14.8%, 정밀기기는 6.2% 등을 기록했다. 그에 따라 4월 품목별 수출은 1~20일 수출에 +3%pts 내외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편, 4월 소비자물가는 금융시장 예상과 같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0%로 전망한다. 주요 품목별로는 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2.7%, 경유는 1.2% 상승했으나, 최근 물가오름세를 주도한 과일, 야채 등 농산물가격은 전월에 비해 하락 또는 보합이었다.

금융시장 Preview

글로벌 금융시장: 5월 FOMC를 앞두고 발표된 미국 4월 제조업/서비스업 PMI 지수와 1Q GDP 등이 경기 및 물가에 대해 다소 엇갈린 결과를 보여줌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차주 예정된 5월 FOMC에서는 경제전망 수정이나 새로운 dot-plot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1~2월에 이어 3월 물가 지표까지도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사실상 파월 의장을 포함한 FOMC 내 컨센서스가 지난 3월 dot-plot에서 제시된 연내 3회 인하에서, 2회 혹은 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판단한다. 선물시장에서도 이미 9월 인하 확률이 40%까지 낮아졌고, 인하 횟수도 연내 약 1.5회까지 낮춰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의 hawkishness를 보여줄 것인가가 핵심이다.

지난 4월 16일 워싱턴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최근의 미국 물가 데이터는 인플레이션 정상화에 대한 확신이 강화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3월 7일 의회에서의 "금리 인하를 시작할 정도의 인플레이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 멀지 않다(not far)"와 3월 FOMC 기자회견에서의 "한두 달의 지표에 과민 반응하지 않겠다"는 발언과는 분명히 달라진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수개월간 인플레이션의 추가적인 둔화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예상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추가 인상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금융시장에는 대체로 중립적인 영향이 예상된다(확률 60%).

반면, 만약 연말까지 동결유지 혹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보다 명시적으로 언급할 경우, 금융시장에는 추가적인 충격이 예상된다. 이 경우, 증시 하락과 일드커브 bear-flattening, 달러 강세가 예상된다(확률 30%). 반대로 비록 궤적은 울퉁불퉁하지만(bumpy path),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점진적인 정상화라는 견해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고용 지표의 추가 악화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할 경우, 시장에는 dovish 서프라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확률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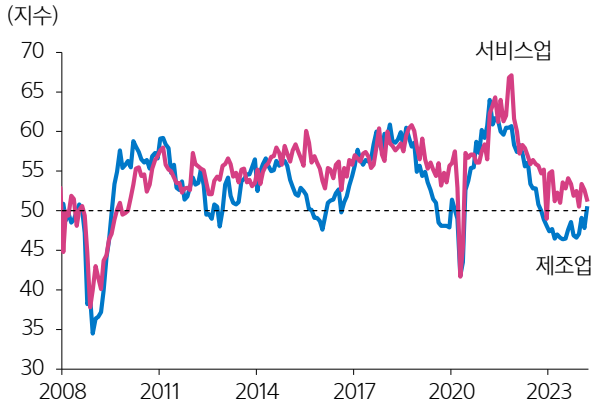
Macro Events: Week Ahead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전기	영향	비고
정책 지표							
미국	5월 2일	5월 FOMC	-	-	-	-	• 기준금리 동결 전망
경제지표							
미국	5월 1일	4월 ADP 고용	천 명	185.0	184.0		
		3월 JOLTS 구인 건수	천 명	8,725.0	8,756.0	상	
		4월 ISM 제조업 지수	지수	50.1	50.3	상	
	5월 3일	4월 비농업고용	천 명	250.0	303.0	상	
		4월 실업률	%	3.8%	3.8%	상	
		4월 시간당 임금	전월 대비	0.3%	0.3%	상	
		4월 ISM 서비스업 지수	지수	52.0	51.4	상	
유로존	4월 30일	4월 CPI	전년 대비	2.4%	2.4%	상	•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
		1분기 GDP	전분기 대비	0.2%	0.0%	상	
독일	4월 29일	4월 CPI	전년 대비	2.3%	2.2%	상	
	4월 30일	1분기 GDP	전분기 대비	-	-0.3%	상	
중국	4월 30일	4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지수	-	50.8	상	
		4월 국가통계국 비제조업 PMI	지수	-	53.0	중	
		1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	-	51.1	중	
한국	5월 1일	4월 수출	전년 대비	14.1%	3.1%	상	• 당사는 +13.7% 전망
		4월 수입	전년 대비	6.4%	-12.3%	상	
	5월 2일	4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3.0%	3.1%	상	
		4월 근원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	2.4%	상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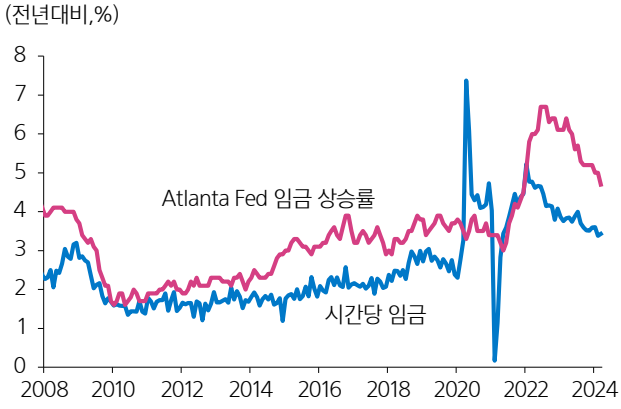
>> 차주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지표

미국 ISM 지수: 제조업 vs.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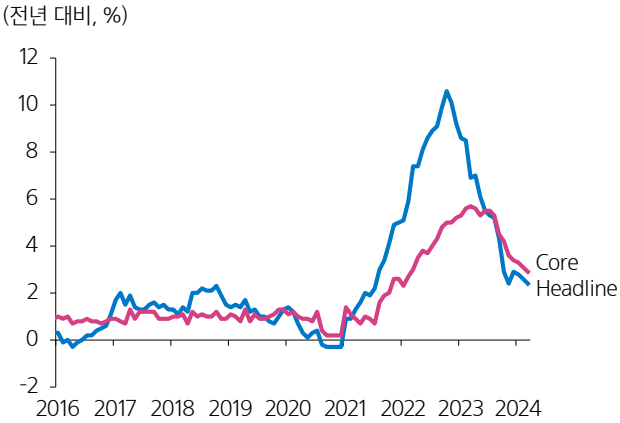
자료: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미국 시간당 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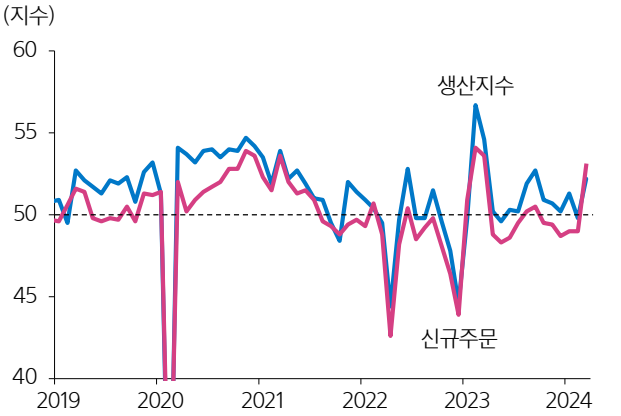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Atlanta Fed

유로존 C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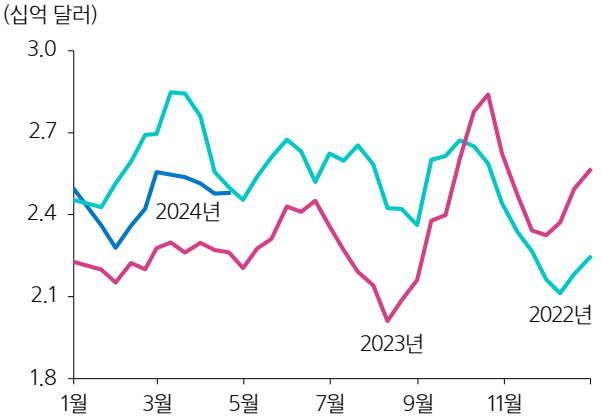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중국 국가통계국 제조업PMI: 생산 지수 vs 신규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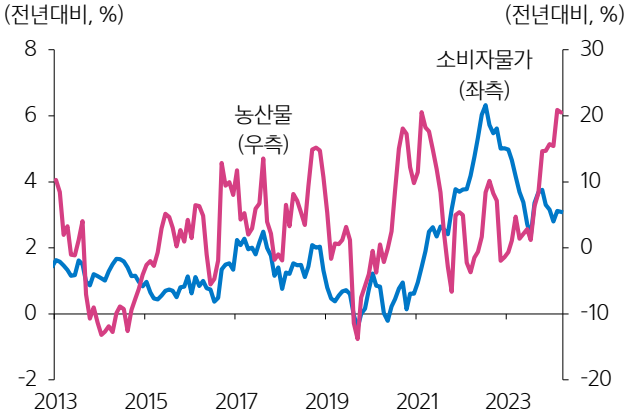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한국 일평균 수출 추이



자료: 관세청, 삼성증권

한국 소비자물가 중 농산물 가격 상승



자료: 통계청

Review

주요 Event와 시사점

미국: 이번 주에는 4월 PMI(23일)와 1분기 GDP(25일) 등이 발표되었다. 4월 미국 제조업 PMI는 49.9, 서비스 PMI는 50.9를 기록해 전월(각각 51.9와 51.7) 대비 하락했다. 이번 데이터는 미국의 성장률과 노동시장이 점차 쿨다운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PMI 세부 항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비스업 고용 지수의 큰 폭 하락이다. 4월 서비스업 고용 지수가 47.3(3월 51.1)을 기록하여, 4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팬데믹 이후 미국 노동시장의 호황을 주도해 온 것이 전체 고용의 약 9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4월 서비스 고용 지수의 큰 폭 하락은 미국 노동시장 과열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1분기 GDP는 전기대비 1.6%를 기록해, 시장예상(2.5%)를 하회했다. 세부 내용에서는 서비스 소비(4.0%), 주택투자 증가(14.0%) 등이 두드러졌다. 경제성장이 시장 예상을 하회한 것은 재고투자 및 순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영향이다. 당사는 미국 경제가 과열 국면을 지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완만하게 둔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유럽: 이번 주에는 4월 유로존 PMI(23일)가 발표되었다. 유로존 4월 제조업, 서비스 PMI는 각각 45.6과 52.9를 기록했다. 제조업 지수는 3월(46.1) 대비 소폭 하락, 서비스 PMI는 3월(51.5) 대비 상승한 것이다. 종합 PMI는 51.4를 기록해 3월(50.3) 대비 상승했다. 4월 PMI는 유로존 경제가 지속적으로 반등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데이터다. 4월 종합 PMI는 '23년 10월 46.5로 저점을 기록한 뒤 6개월 연속으로 반등하는 흐름이며, 3월부터는 경기 확장 기준선인 50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종합 PMI가 경기 확장 기준선인 50을 상회하기 시작하면서, 0% 내외에 머물렀던 유로존 경제성장률 역시 2Q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수준의 PMI가 유지된다면, 유로존 성장률은 2Q에 +0.3% 수준까지 반등해, 시장 예상(+0.2%, Bloomberg)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는 ECB 6월 첫 금리 인하, 연내 3회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기 역시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전망을 조정할 정도의 호황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종합 PMI의 투입 비용 지수, 판매 가격 지수가 각각 58.2와 53.6을 기록해 3월(각각 57.4와 53.1)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역사적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 이번 주에는 1분기 GDP(25일)가 발표되었다. 1분기 GDP는 전년 대비 3.4%(전기 대비 1.3%)를 기록하며, 당사 및 금융시장 예상인 2.4%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7.1%, 수입은 -0.8%를 기록하며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3.9%pts를 기록한 영향이다. 반면 민간 소비(전년 대비 1.1%), 설비 투자(0.6%), 건설 투자(-0.6%) 등이 부진하며,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0.4%pts를 기록했다. 당사는 예상을 상회한 1Q 성장률을 반영하여, '24년 한국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2.4%에서 2.7%로 상향하나, 한국의 금리 인하 전망은 기존의 10월과 11월 두 차례로 유지한다. 한국 내수는 부진하고, 하반기에는 소비자물가가 2.5% 내외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며, 9월에 Fed가 첫 금리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일본: 이번 주에는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26일)가 개최되었다. BOJ는 금융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으며, 국채매입 등은 지난달 발표된 방침을 유지했다. 한편, BOJ는 '24년(회계연도 기준) 성장률 전망을 0.7~1.0%으로 하향했으나,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는 2.6~3.0%로 상향했다. '25년의 경우에도 성장률은 0.8~1.1%로 하향, 소비자물가는 1.7~2.1%로 상향했다. BOJ의 성장 전망 하향은 검사결과 조작으로 인한 도요타, 다이하츠 등의 생산 중단과 예상보다 부진한 소비와 투자를 반영한다. 반면 물가 전망의 상향은 국제유가 상승과 엔화 약세를 반영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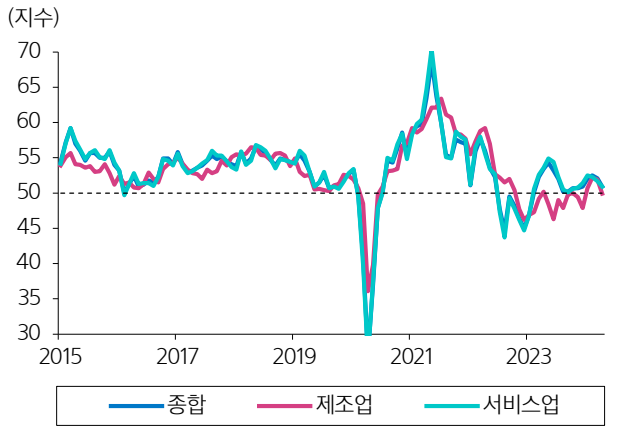
Macro Events: Week Review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실제치	전기	예상대비	비고
정책 지표								
일본	4월 26일	4월 통화정책회의	-	-	-	-	-	
경제지표								
미국	4월 23일	4월 S&P Global 제조업 PMI	지수	52.0	49.9	51.9	Below	
		4월 S&P Global 서비스업 PMI	지수	52.0	50.9	51.7	Below	• 서비스업 고용지수 하락 주목
		3월 신규 주택 판매	전월 대비	0.9%	8.8%	-5.1%	Above	
	4월 24일	3월 내구재주문	전월 대비	2.5%	2.6%	0.7%	Above	
	4월 25일	1분기 GDP	전분기 대비 연율화	2.5%	1.6%	3.4%	Below	• 정부지출과 순수출 부진 영향
	4월 26일	3월 개인소득	전월 대비	0.5%	-	0.3%	-	
		3월 개인소비	전월 대비	0.6%	-	0.8%	-	
		3월 PCE 물가	전월 대비	0.3%	-	0.3%	-	
		3월 핵심 PCE 물가	전월 대비	0.3%	-	0.3%	-	
유로존	4월 23일	4월 S&P Global 제조업 PMI	지수	46.5	45.6	46.1	Below	
		4월 S&P Global 서비스업 PMI	지수	51.8	52.9	51.5	Above	
독일	4월 23일	4월 S&P Global 제조업 PMI	지수	42.7	42.2	41.9	Below	
		4월 S&P Global 서비스업 PMI	지수	50.5	53.3	50.1	Above	
일본	4월 23일	4월 S&P Global 제조업 PMI	지수	-	49.9	48.2	-	
		4월 S&P Global 서비스업 PMI	지수	-	54.6	51.7	-	
한국	4월 23일	3월 생산자물가	전년 대비	-	1.6%	1.5%	-	
	4월 25일	1분기 GDP	전년 대비	2.5%	3.4%	2.2%	Above	• 순수출이 1Q GDP 호조를 견인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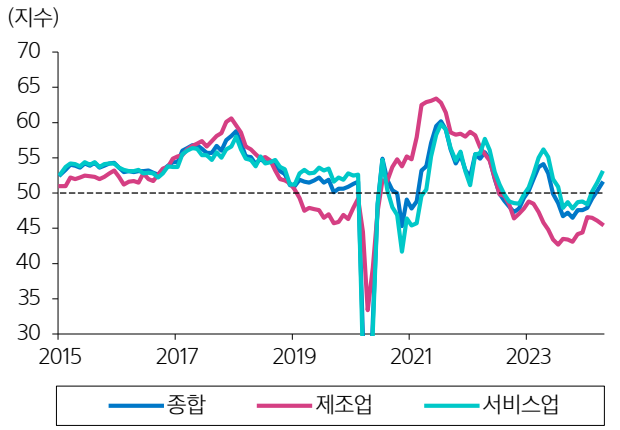
금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

미국 S&P Global PMI: 종합 vs. 제조업 vs.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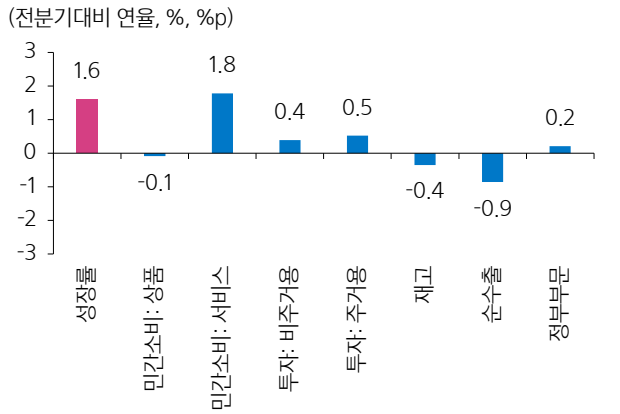
자료: S&P Global

유럽 S&P Global PMI: 종합 vs. 제조업 vs.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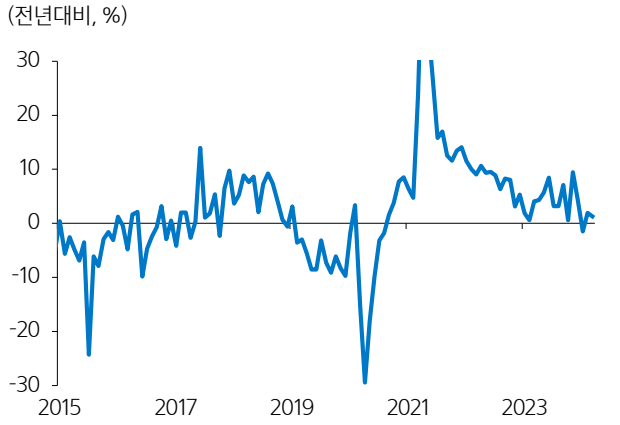
자료: S&P Global

미국 1분기 GDP 성장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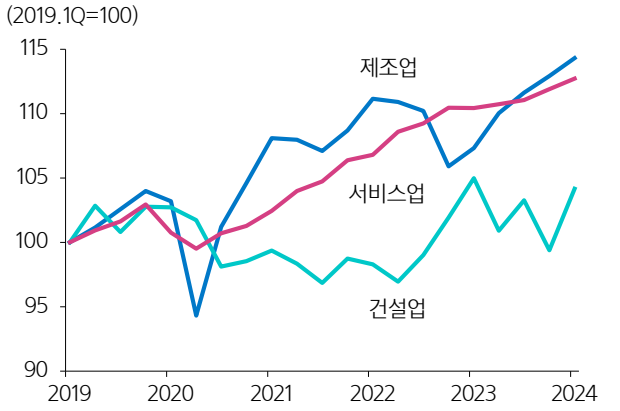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미국 내구재 신규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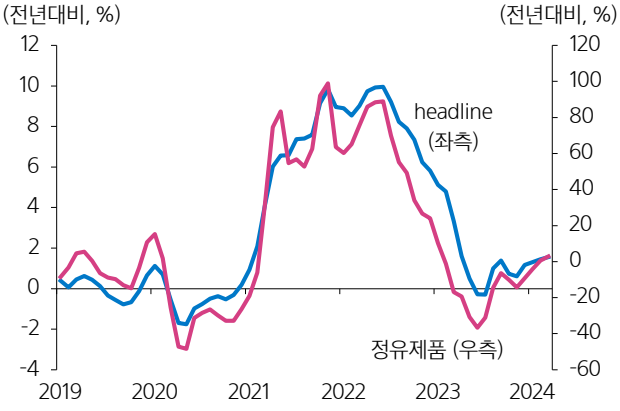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한국 경활동별 GDP 추이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한국 생산자물가 중 정유제품 물가 상승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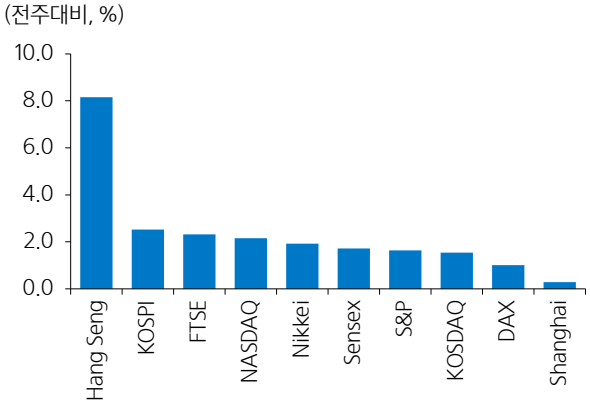
금융시장 동향 (4월 26일 15시 기준)

주식시장: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상승했다. 미국 4월 S&P Global PMI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가 낮아진 영향이었다. 아울러, 이스라엘-이란 간 분쟁이 진정 양상을 보인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미국 S&P500은 전주 대비 1.6%, DOW는 0.3%, NASDAQ은 2.2%를 기록했다.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으나, 1분기 핵심 PCE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증시 상승 일부는 되돌려졌다. 한국 증시도 코스피가 전주 대비 2.6%, 코스닥이 1.5%를 기록하면서 함께 상승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다. 중국 상하이종합은 전주 대비 0.3%, 항셍지수는 8.3%를 기록했다. 상하이종합은 철강, 비철금속, 석탄 등 시클리컬 주식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보합을 보인 반면, 항셍지수는 AI 등 IT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했다. 한편, 유로Stoxx50는 전주 대비 0.4%, 프랑스CAC40는 -0.1%, 독일DAX는 1.0%를 기록했다.

외환시장: 이번 주 달러 인덱스는 106.2에서 105.7로 하락했다. 이번 주 발표된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였다. 미국 4월 PMI가 2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면서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다. 미국 1분기 GDP도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1.6%로 시장 예상(2.5%)을 하회한 점도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유로존 4월 종합 PMI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유로화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엔화는 155엔/달러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약세가 심화되었다.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26일 스즈키 순이치 일본 재무상은 엔화 약세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언했으나 구체적인 시점과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번 주 달러 대비 파운드화는 +1.1%, 유로화 +0.6%, 원화 +0.3%, 엔화 -0.9%, 위안화는 약보합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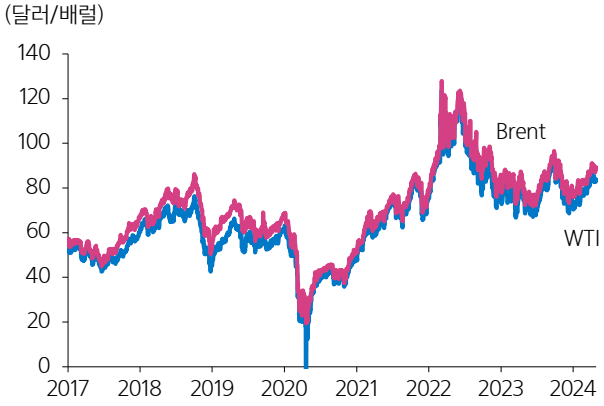
원자재시장: 이번 주 WTI는 $83.1에서 $83.8, 브렌트는 $87.3에서 $89.3로 상승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등이 유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번 주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없었으나,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가 라파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대피시키고 하마스 저항군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감은 유지되었다. 미국과 EU가 이란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주간 원유 재고는 636.8만 배럴 감소한 점도 유가 상승 요인이었다. 한편, 이번 주 주요국 제조업 PMI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는 유가 상방을 제한하는 요인이었다.

주요국 주식시장 등락



참고: 4월 26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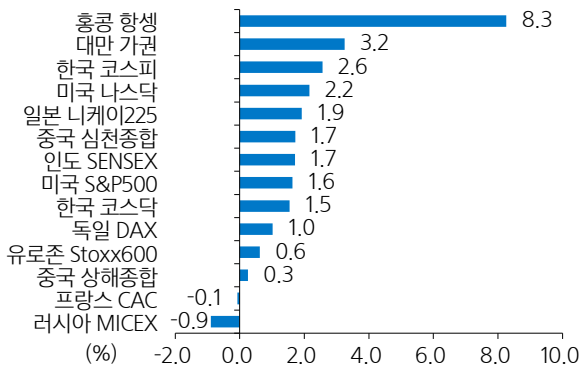
국제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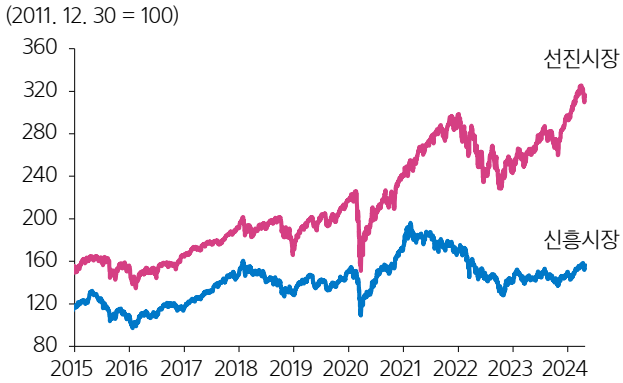
금융시장 동향

주요국 증시 performance (전주 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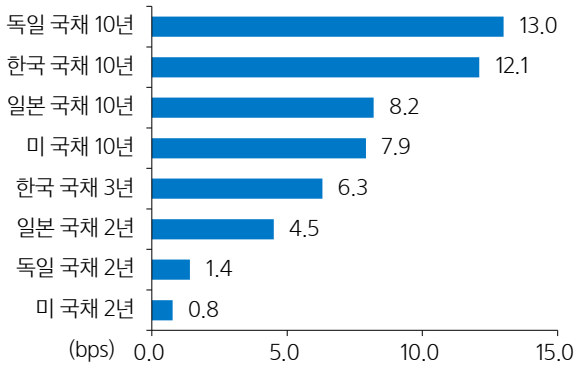
참고: 4월 26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MSCI 선진시장 vs. 신흥시장 (Local Currency)



자료: Bloomberg

주요국 국채 수익률 변화 (전주 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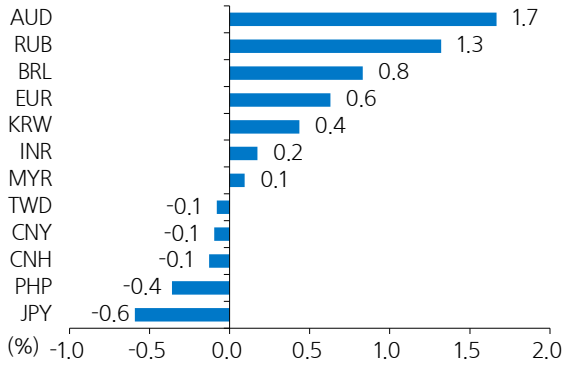


참고: 4월 26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한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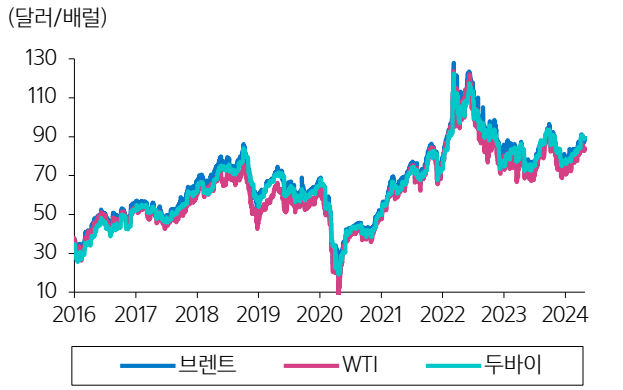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가치 절상률 (전주 말 대비)



참고: 4월 26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국제유가



자료: Bloomberg

주요국 통화정책 update

국가명	정책금리 (%)	직전 (%)	통화정책 변화일	정책금리 변화 (bps) 3개월	1년	변화 내용
주요국						
미국	5.25~5.50	5.00~5.25	23.07.26	0	50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 '24년 점도표는 3회 인하를 유지. 한편, '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기존 1.4%에서 2.1%(4Q, 전년 대비)로, 4Q 핵심 PCE 물가 전년 대비 상승률은 기존 2.4%에서 2.6%로 상향했으나, 파월 의장은 물가 둔화세에 대한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
유로존	4.50	4.25	23.09.14	0	100	ECB, 4월 회의에서 당사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나타냄. 라가르드 총재는 새로운 평가에서 물가 목표로 돌아가고 있다는 전망이 강해진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힘. 또한, ECB는 Fed가 아니라 데이터에 의존한다고 밝히면서 Fed보다 빠르게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
한국	3.50	3.25	23. 01.13	0	0	한국은행, 4월 금통위에서 당사와 금융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 성명문 중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라는 문구에서 '장기간'이 삭제되었으며, 이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 다만, 물가 불확실성이 농산물, 유가 등의 변동성에 높아졌다고 밝히면서 신중한 기조를 나타냄
일본	0.10	-0.10	24.03.19	20	20	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했으며, 국채 매입은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발표. 한편, '24년(회계연도 기준) 핵심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전망은 기존 2.2~2.5%에서 2.6~3.0%로 상향하고, 경제 전망은 기존 1.0~1.2%에서 0.7~1.0%로 하향. 한편, 일본은행은 완화적인 통화여건을 유지할 것이라 언급
영국	5.25	5.00	23.08.03	0	100	BOE, 기준금리를 5.25%로 동결. 중앙은행 측은 물가가 둔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포착했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 2월에는 2명의 위원이 25bp 인상에 투표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모든 위원이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
중국	2.50	2.65	23.08.15	0	(25)	2월 중국 인민은행은 5년 만기 LPR을 25bp 인하. 5년 만기 LPR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기 때문에, 부동산 부양에 초점을 맞춘 행보인 것으로 판단. 한편, 1년물 MLF 금리는 3월에도 2.5%를 유지
기타 지역						
멕시코	11.00	11.25	24.03.21	(25)	(25)	멕시코 중앙은행, 기준금리 11.00%로 25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누적된 금리 인상 효과와 팬데믹 및 러-우 전쟁에 따른 충격 완화에 따라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인도	6.50	6.25	23.02.08	0	0	인도 중앙은행, 시장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금융불안 때문에 경기 전망에 하방 리스크가 추가되었다고 언급. 한편, 금리 동결 결정은 일회성적인 것이며 인플레이션 억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
브라질	10.75	11.25	24.03.20	(100)	(300)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 10.75%로 50bp 인하. 중앙은행은 '23년 8월 50bp 인하를 시작으로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 만장일치 결정이었으며 중앙은행의 물가 추정치도 3.5%로 유지
튀르키예	50.00	45.00	24.03.21	500	4150	튀르키예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3월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았다고 평가. 다만, 지난 3월 인상 조치의 결과로 금융상황이 크게 긴축되었다며, 긴축 정책의 효과가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
인도네시아	6.25	6.00	24.04.24	25	5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6.25%로 25bp 인상. 중앙은행 측은 최근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힘
호주	4.35	4.10	23.11.07	0	75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4.35%로 동결. 중앙은행 측은 최근 데이터가 인플레이션 압력의 완화를 시사하고 있으나, 여전히 물가가 너무 높고 당분간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노르웨이	4.50	4.25	23.12.14	0	150	노르웨이 중앙은행, 기준금리 4.5%로 동결. 중앙은행 측은 당분간(some time ahead)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
러시아	16.00	15.00	23.12.15	0	850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16%로 동결. 중앙은행 측은 2024년 연간 물가 상승률이 4.0~4.5%로 둔화되고 이후 4%에 가깝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
뉴질랜드	5.50	5.25	23.05.24	0	25	뉴질랜드 중앙은행, 기준금리 5.5%로 동결. 중앙은행 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 범위인 1~3%를 넘어서고 있다며 생산능력을 제한하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설명
스위스	1.50	1.75	24.03.21	(25)	0	스위스 중앙은행, 기준금리 1.5%로 25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2%를 밑도는 수준에 접어들면서 물가가 안정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
캐나다	5.00	4.75	23.06.08	0	50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위험이 남아있다면서도 headline 및 core CPI가 최근 몇 달간 더 완화되었다고 평가

주요 금융시장 동향 (1/2)

	4월 19일	4월 22일	4월 23일	4월 24일	4월 25일	4월 26일	변화율 (%, bps)							
							1 week	1 month	3 months	6 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YTD
주식시장 (지수)														
KOSPI	2,592	2,629	2,623	2,676	2,629	2,658	2.5	(3.6)	7.2	15.6	7.0	(0.4)	(17.4)	0.1
미국 S&P 500	4,967	5,011	5,071	5,072	5,048	5,048	1.6	(3.0)	3.2	22.0	24.5	20.9	20.6	5.8
일본 NIKKEI 225	37,068	37,439	37,552	38,460	37,628	37,780	1.9	(6.5)	5.7	23.5	33.0	41.5	29.7	12.9
영국 FTSE	7,896	8,024	8,045	8,040	8,079	8,079	2.3	1.9	5.8	9.8	2.9	9.4	16.0	4.5
독일 DAX	17,737	17,861	18,138	18,089	17,917	17,917	1.0	(2.5)	5.6	21.6	13.4	30.2	17.1	7.0
중국 상해종합	3,065	3,045	3,022	3,045	3,053	3,074	0.3	1.4	5.6	2.9	(5.8)	6.5	(10.7)	3.3
홍콩 H	5,747	5,831	5,955	6,100	6,120	6,228	8.4	6.9	16.2	6.3	(6.4)	(7.7)	(43.3)	8.0
인도 Sensex	73,088	73,649	73,738	73,853	74,339	74,339	1.7	2.6	5.1	17.7	23.3	29.6	53.6	2.9
인도네시아 JCI	7,087	7,074	7,111	7,175	7,155	7,116	0.4	(3.4)	(0.3)	6.0	3.0	(1.6)	19.3	(2.2)
브라질 iBovespa	125,124	125,573	125,148	124,741	124,646	124,646	(0.4)	(1.7)	(3.4)	8.6	21.8	15.2	3.4	(7.1)
MSCI World (USD)	3,256	3,282	3,323	3,323	3,307	3,307	1.6	(3.2)	2.8	20.6	19.0	17.6	11.9	4.3
MSCI EM (USD)	1,004	1,012	1,019	1,035	1,029	1,029	2.4	(1.1)	4.4	12.9	6.3	(2.0)	(24.4)	0.4
채권금리 (%)														
한국 국채 3년	3.48	3.51	3.49	3.51	3.54	3.54	6	24	28	(57)	28	71	243	40
한국 국채 10년	3.59	3.65	3.64	3.65	3.71	3.71	12	30	32	(69)	40	53	163	54
미국 국채 2년	4.99	4.97	4.93	4.93	5.00	4.99	1	40	64	(5)	104	252	483	74
미국 국채 10년	4.62	4.61	4.60	4.64	4.70	4.70	8	47	56	(14)	125	198	313	82
일본 국채 10년	0.85	0.89	0.89	0.91	0.90	0.93	8	19	22	6	47	69	85	32
독일 국채 10년	2.50	2.49	2.50	2.59	2.63	2.63	13	28	33	(23)	23	182	288	61
중국 국채 10년	2.26	2.25	2.23	2.27	2.26	2.27	1	(6)	(24)	(45)	(54)	(57)	(93)	(30)
인도 국채 10년	7.23	7.19	7.16	7.19	7.21	7.21	(2)	12	3	(16)	9	15	117	1
인도네시아 국채 10년	7.04	7.06	7.06	7.06	7.10	7.15	11	46	51	(4)	63	15	71	67
브라질 국채 10년	11.50	11.58	11.55	11.64	11.72	11.72	23	70	105	26	(62)	(63)	272	136
JPM EMBI Global	285.6	283.1	281.7	283.9	285.1	285.1	(0)	(4)	(49)	(93)	(123)	(91)	(32)	(34)
장단기 금리 차 (%)														
미국 국채 10년-2년	-0.37	-0.36	-0.33	-0.29	-0.29	-0.29	7	7	(8)	(10)	21	(54)	(169)	8
일본 국채 10년-2년	0.58	0.61	0.60	0.60	0.60	0.62	4	8	(4)	(17)	12	32	41	6
독일 국채 10년-2년	-0.50	-0.48	-0.43	-0.38	-0.38	-0.38	12	14	(5)	(17)	(1)	(105)	(82)	(0)
중국 국채 10년-2년	0.28	0.29	0.28	0.31	0.32	0.32	4	9	5	7	(1)	(12)	(9)	5
한국 국채 10년-3년	0.11	0.14	0.15	0.15	0.17	0.17	6	6	4	(12)	12	(18)	(79)	14

(다음 페이지에 계속)

주요 금융시장 동향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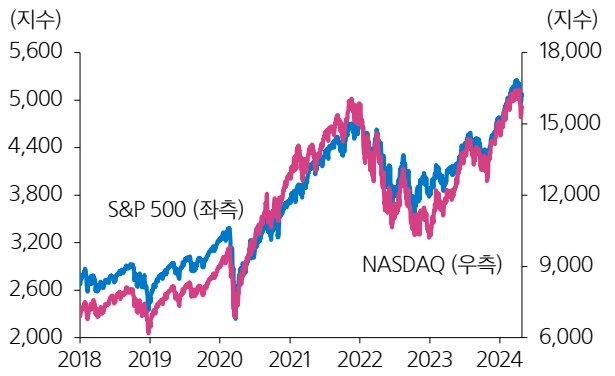
	4월 19일	4월 22일	4월 23일	4월 24일	4월 25일	4월 26일	변화율 (%, bps)							
							1 week	1 month	3 months	6 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YTD
CDS Premium (bps)														
미국 (5년)	39.5	39.4	39.0	40.5	40.5	40.5	1	1	(2)	(12)	(23)	27	35	(7)
일본 (5년)	12.4	12.3	12.3	12.3	12.3	12.3	(0)	(0)	(2)	(6)	(3)	1	2	(2)
독일 (5년)	40.1	39.6	39.1	38.6	38.6	38.6	(2)	0	8	(8)	(8)	1	17	11
중국 (5년)	6.5	6.5	6.5	6.5	6.5	6.5	(0)	(2)	(4)	(12)	(5)	(3)	(2)	(6)
한국 (5년)	71.7	71.2	70.2	70.2	70.2	70.2	(2)	(0)	5	(13)	(5)	(8)	30	10
인도네시아 (5년)	81.2	80.2	78.2	77.7	77.7	77.7	(4)	5	1	(24)	(20)	(38)	(2)	8
브라질 (5년)	162.0	157.1	152.1	151.2	151.2	151.2	(11)	18	14	(35)	(76)	(70)	(39)	20
러시아 (5년)	12,940.3	12,940.3	12,940.3	12,940.3	12,940.3	12,940.3	0	0	0	0	0	(2,041)	12,849	0
상품가격														
CRB지수	298.2	298.1	297.5	297.1	297.7	297.7	(0.2)	3.4	8.8	5.7	12.3	(1.7)	50.2	12.8
WTI (달러/배럴)	83.1	82.9	83.4	82.8	83.6	83.8	0.8	2.7	7.4	0.7	12.8	(17.6)	35.3	16.9
두바이유 (달러/배럴)	88.8	88.7	89.0	89.0	89.2	89.2	0.4	6.0	13.0	(0.5)	7.2	(13.2)	42.4	15.3
LME 구리 (달러/톤)	9,876	9,830	9,707	9,774	9,865	9,865	(0.1)	11.3	15.4	23.5	15.3	0.1	1.2	15.3
금 (달러/oz)	2,392	2,327	2,322	2,316	2,332	2,334	(2.4)	7.1	15.6	17.6	17.4	22.5	31.0	13.2
은 (달러/oz)	28.69	27.20	27.31	27.16	27.43	27.42	(4.4)	12.1	20.2	20.3	10.2	16.8	4.5	15.2
옥수수 (센트/부셸)	433.5	439.8	443.0	437.8	441.0	441.8	1.9	2.1	(1.0)	(7.8)	(31.1)	(45.0)	(35.1)	(6.3)
소맥 (센트/부셸)	550.3	570.3	585.0	594.5	602.3	601.0	9.2	10.6	0.1	3.7	(4.2)	(44.5)	(18.7)	(4.3)
달러화 대비 환율														
한국 원화	1,382	1,379	1,378	1,369	1,375	1,376	0.4	(2.7)	(2.9)	(1.2)	(2.9)	(9.1)	(19.1)	(6.4)
일본 엔화	154.64	154.85	154.83	155.35	155.65	155.57	(0.6)	(2.6)	(4.8)	(3.3)	(14.1)	(18.2)	(30.5)	(9.4)
유로화	1.066	1.066	1.070	1.070	1.073	1.072	0.6	(1.0)	(1.2)	1.5	(2.9)	0.8	(11.3)	(2.9)
중국 위안화 (역내)	7.239	7.244	7.245	7.246	7.240	7.246	(0.1)	(0.4)	(1.0)	1.0	(4.4)	(9.5)	(10.5)	(2.0)
중국 위안화 (역외)	7.251	7.251	7.261	7.273	7.255	7.261	(0.1)	(0.2)	(1.0)	0.9	(4.4)	(9.2)	(10.9)	(1.9)
인도 루피화	83.47	83.37	83.34	83.32	83.33	83.33	0.2	(0.0)	(0.3)	(0.1)	(1.9)	(8.1)	(10.3)	(0.1)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16,255	16,235	16,220	16,154	16,188	16,225	0.2	(2.7)	(2.5)	(1.9)	(8.6)	(11.2)	(10.7)	(5.1)
브라질 헤알화	5.202	5.166	5.126	5.148	5.159	5.159	0.8	(3.4)	(4.8)	(3.3)	(2.2)	(3.1)	5.4	(5.9)
달러 인덱스	106.15	106.08	105.68	105.86	105.60	105.63	(0.5)	1.3	2.1	(0.9)	4.1	3.3	16.3	4.2
아시아 달러 인덱스	90.2	90.2	90.2	90.3	90.2	90.2	0.0	(1.0)	(1.6)	0.3	(4.0)	(8.1)	(11.6)	(3.1)
JPM 이머징 통화지수	46.11	46.12	46.25	46.21	46.24	46.24	0.3	(0.6)	(2.3)	(1.0)	(8.3)	(11.0)	(18.9)	(3.9)

참고: 4월 26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Refinitiv

주요 금융시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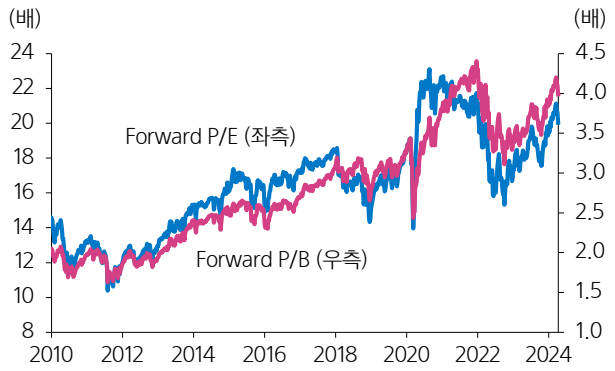
>> 미국

S&P 500과 NASDAQ 명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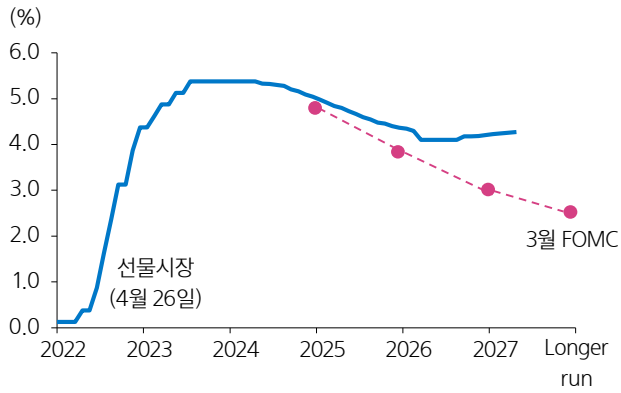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P 500: Forward P/E와 P/B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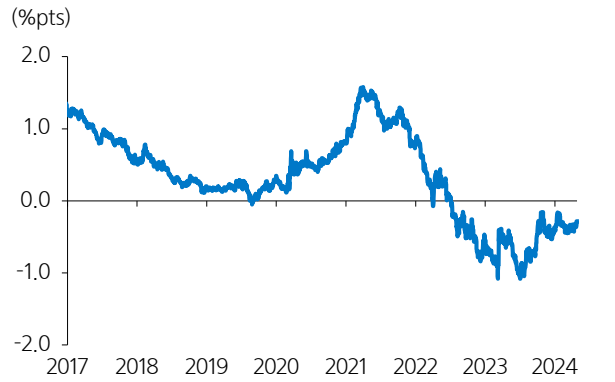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반영된 기준금리 수준



참고: 발표된 기준금리는 목표 범위의 중간값 기입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10년물-2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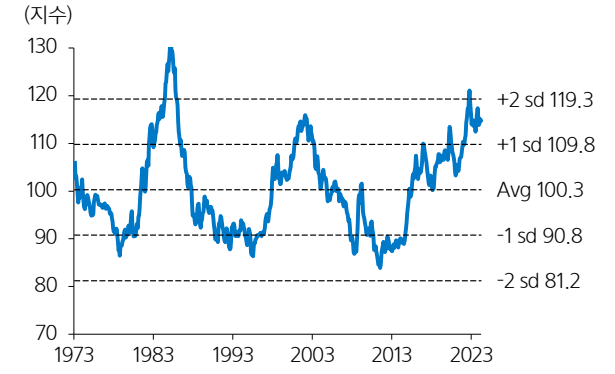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회사채 Baa - Aaa 스프레드 추이

자료: Moody's,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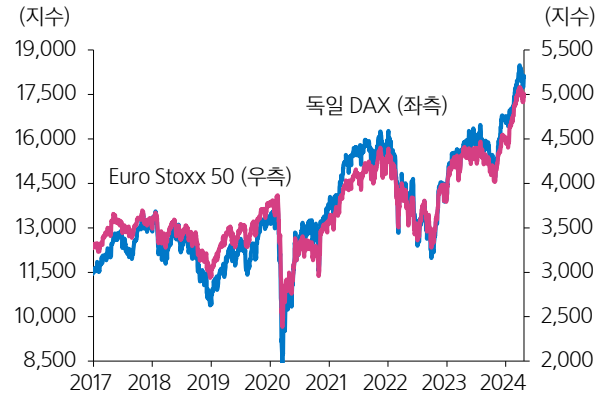
Fed 달러 지수 추이



자료: Federal Reser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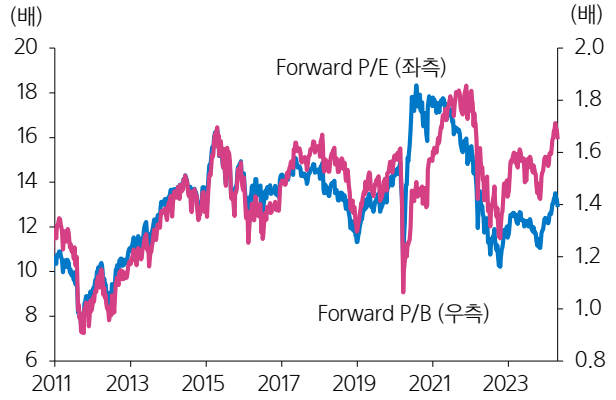
유럽

독일 DAX 지수와 Euro Stoxx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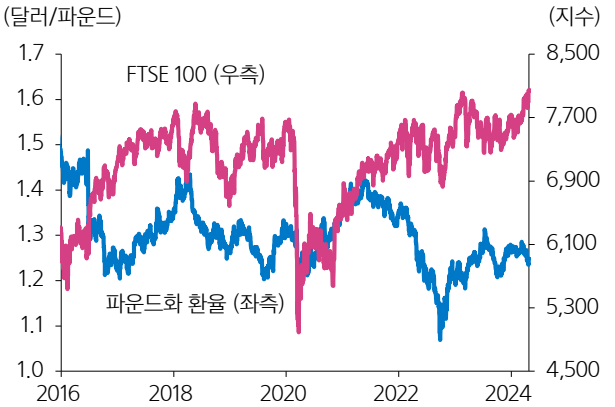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EMU 12개월 forward P/E와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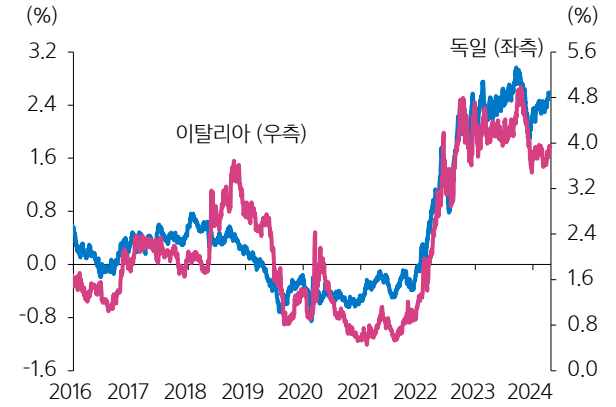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영국 FTSE100과 파운드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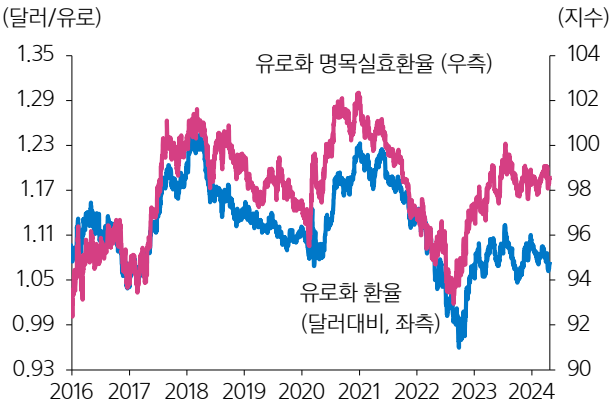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독일,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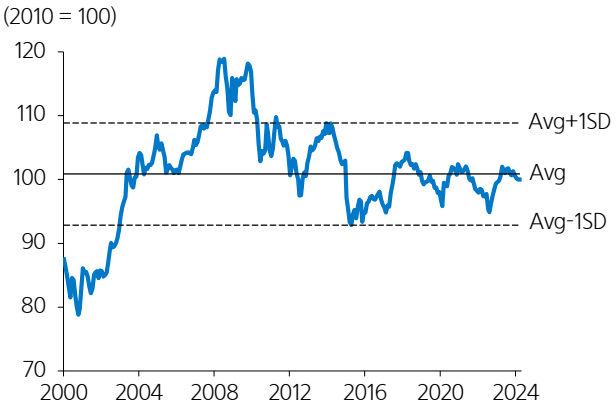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로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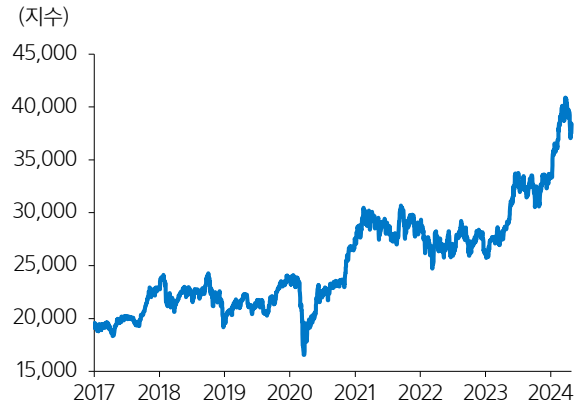
유로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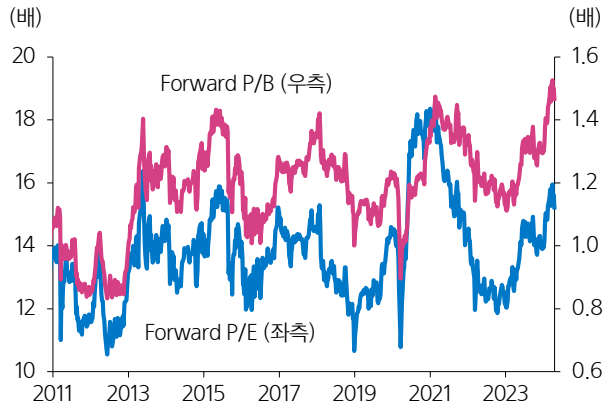
일본

일본 NIKKEI225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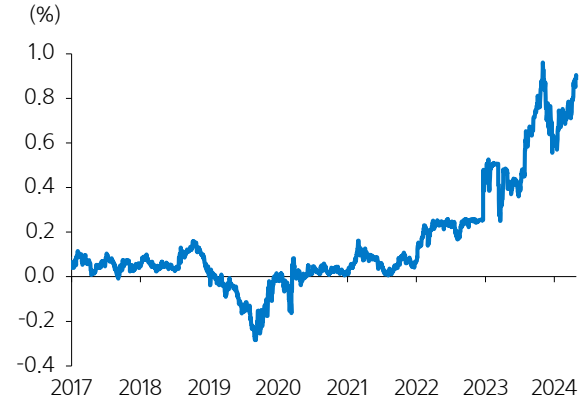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Japan: Forward P/E와 P/B 추이



자료: Refinitiv

일본 국채 10년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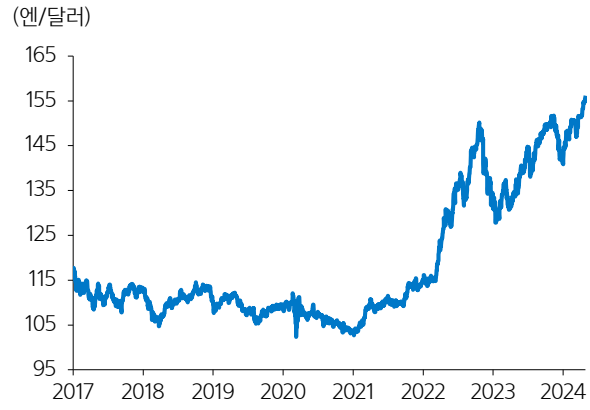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일본 국채 10년물-2년물)

자료: Bloomberg

엔/달러 환율 추이



료: Bloomberg

엔화 실질 실효 환율

자료: BIS, 삼성증권 추정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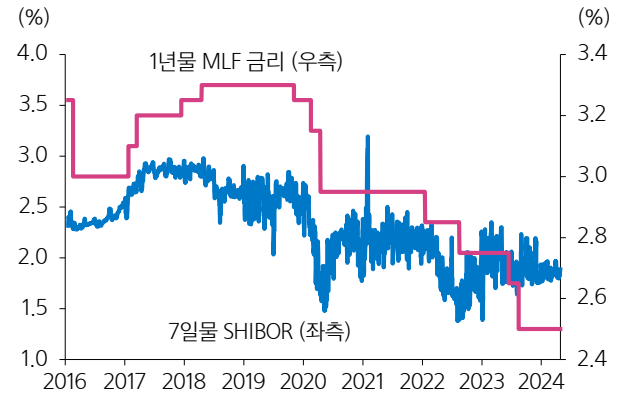
중국 상해 및 심천종합 지수

자료: Bloomberg

상해종합 지수 Forward P/E Valuation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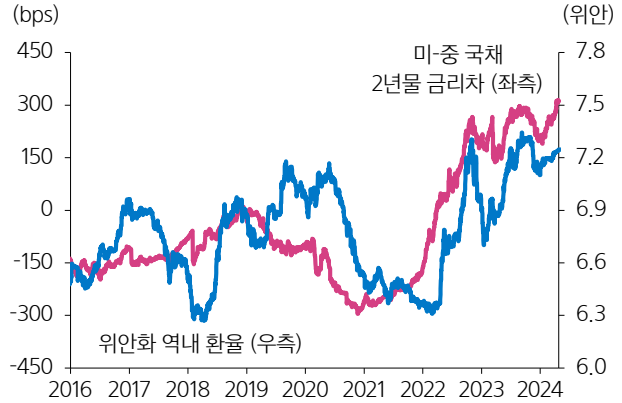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1년물 MLF 금리와 7일물 SHIBOR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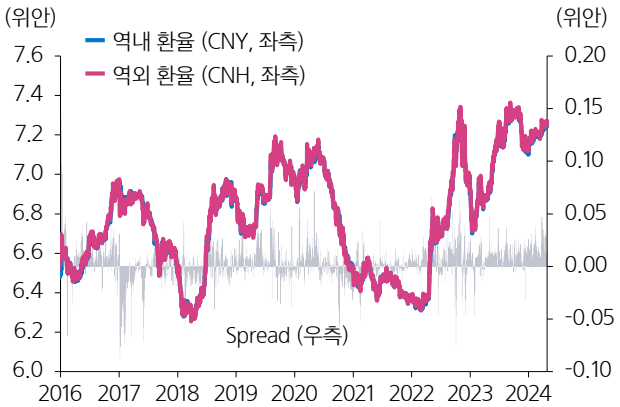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중 금리 차와 위안화 역내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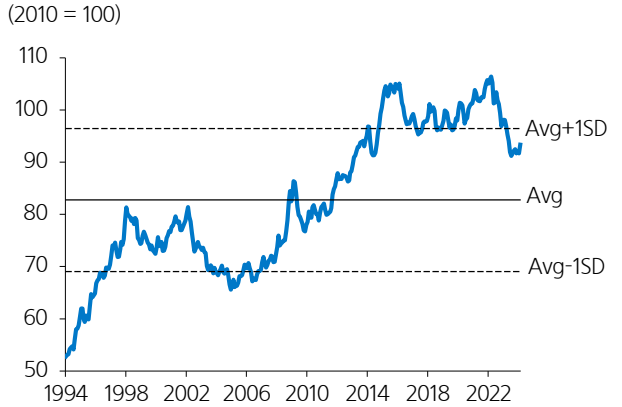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위안화 환율 추이: 역내(CNY) vs. 역외(CNH)



자료: Bloomberg

위안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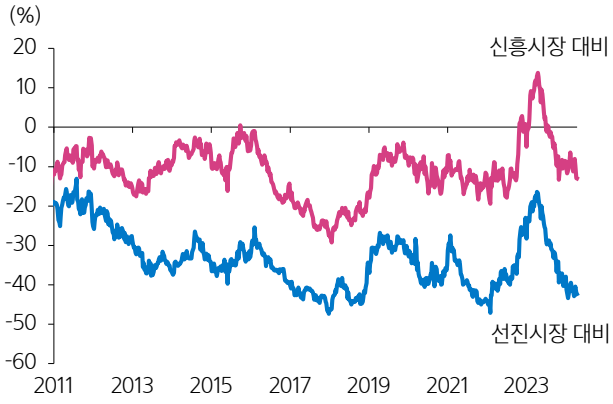
자료: BIS, 삼성증권 추정

한국

한국 KOSPI와 KOSDAQ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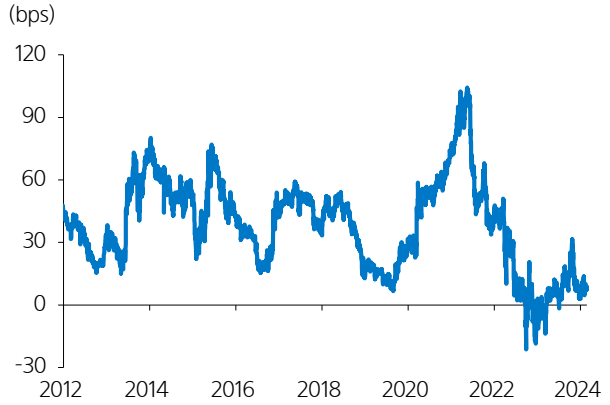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OSPI Forward P/E 밸류에이션 할증/할인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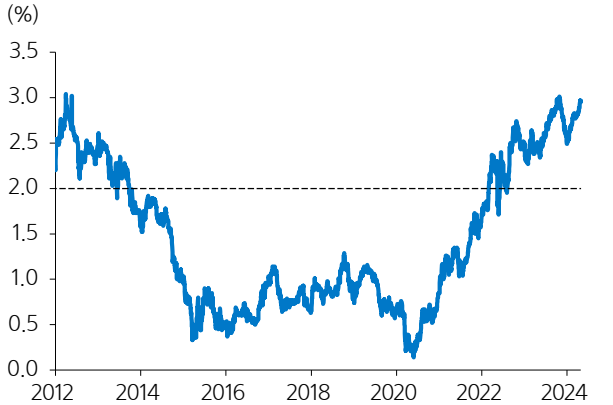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장단기 금리 차 (국고 10년-국고 3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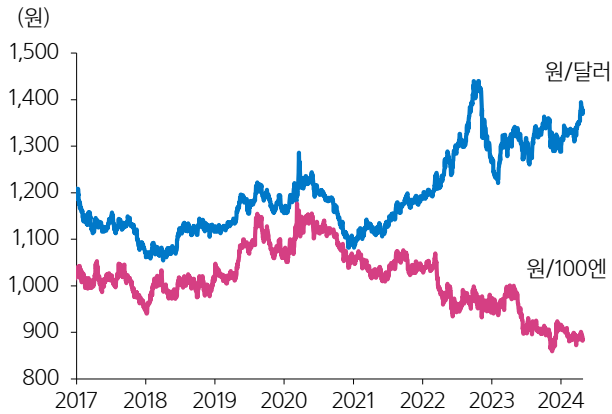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10년 BE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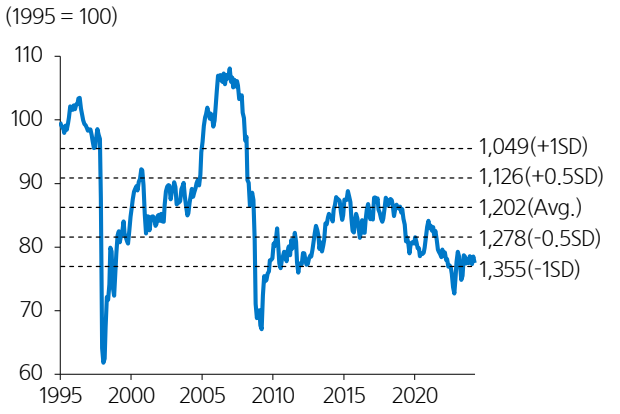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달러와 원/100엔 환율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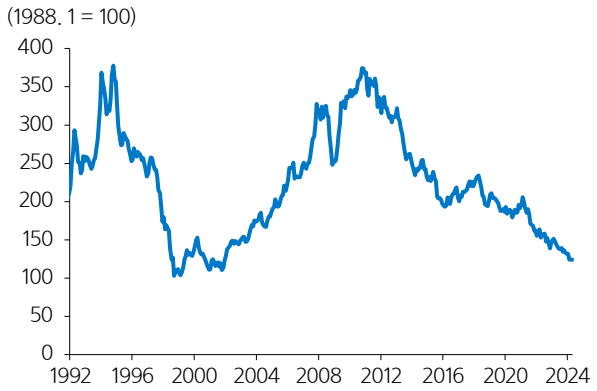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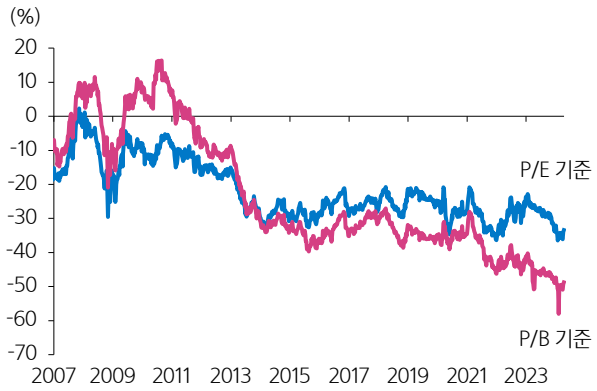
>> 신흥국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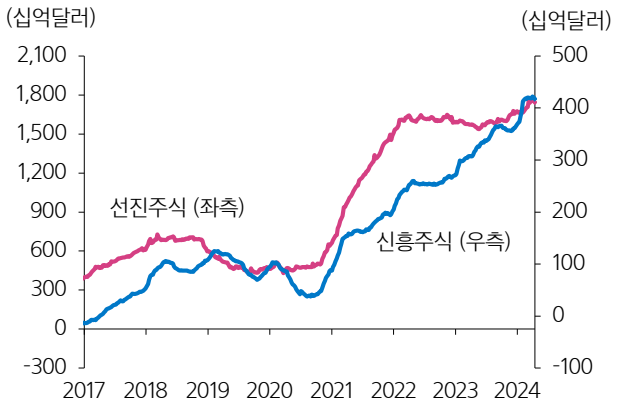
참고: MSCI USD 지수 기준
자료: Refinitiv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 할증/할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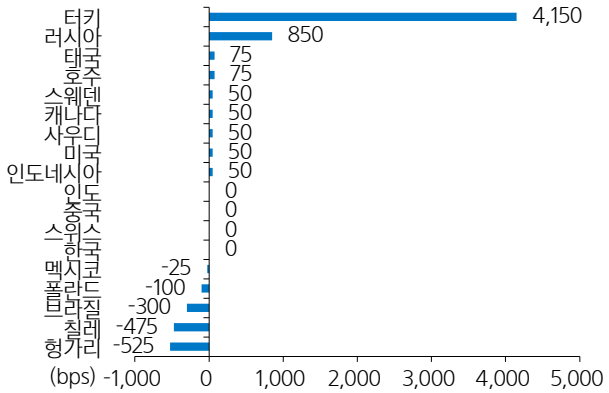
참고: 12개월 forward P/E 및 P/B. MSCI 선진국 및 신흥국 지수 기준
자료: Refinitiv

선진/신흥시장 주식형 펀드 누적 Fund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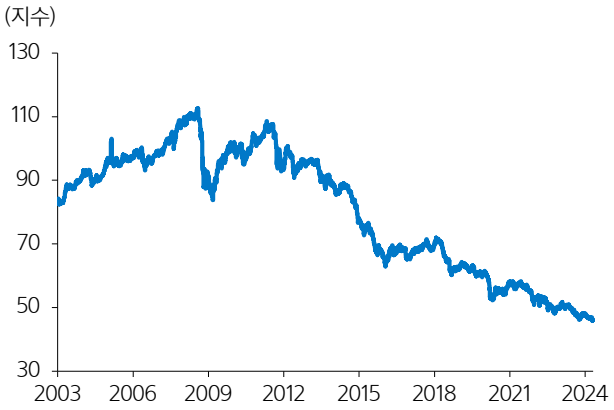
자료: EPFR, 삼성증권

주요국 정책금리 변화 (12개월 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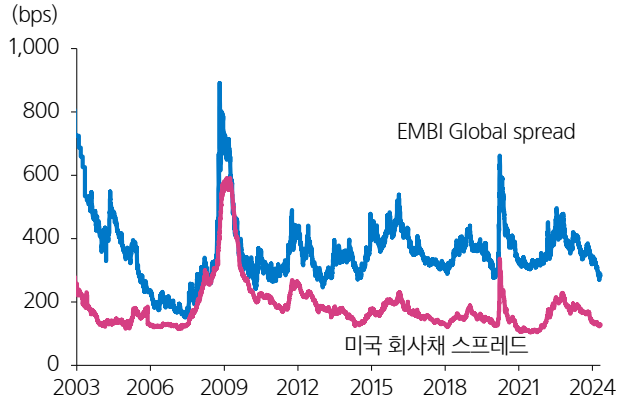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JPMorgan Emerging Currency Index



자료: JPMorgan,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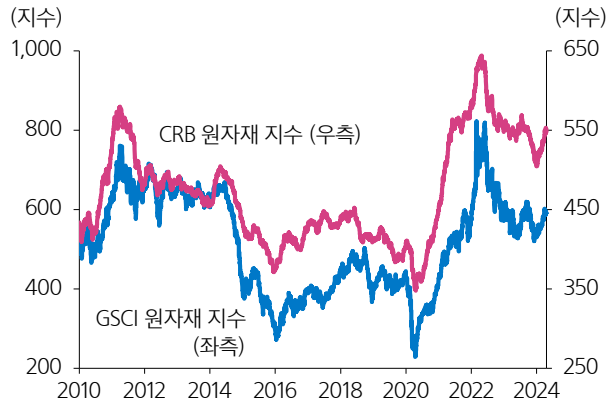
EMBI Spread와 미국 회사채(BBB)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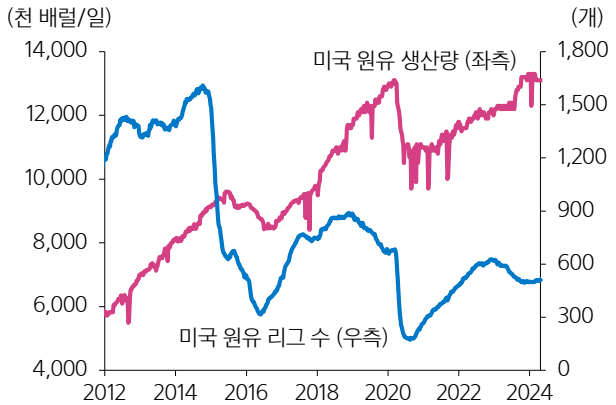
>> 주요 원자재

GSCI Commodity Index / CRB Index



자료: Bloomberg

미국 원유 리그 수와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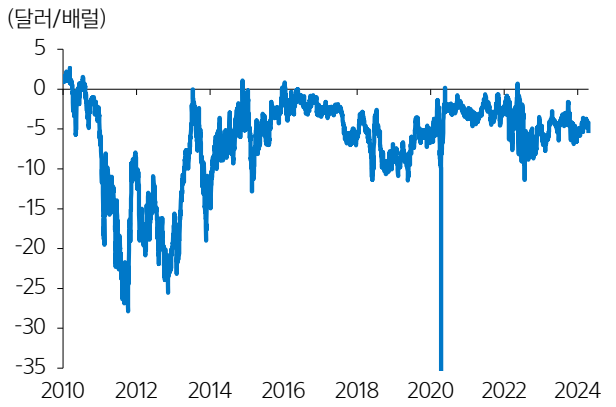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Baker Hughes

미국 원유 재고량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WTI/Brent 유가 spread



자료: Bloomberg

구리 및 철광석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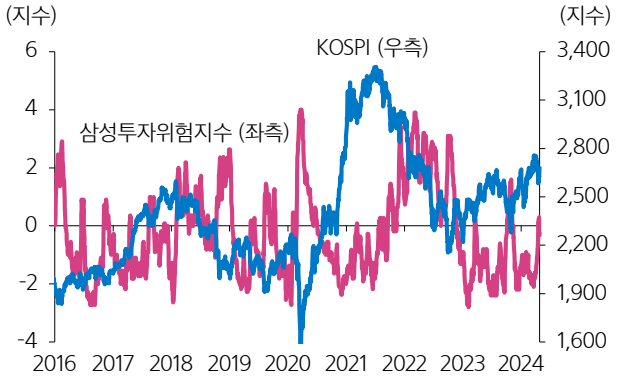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금/은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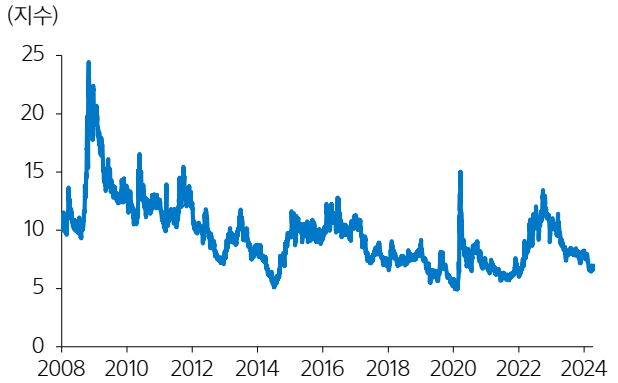
>> 변동성 지표와 CDS Premium

삼성 투자위험 지수 (Samsung Risk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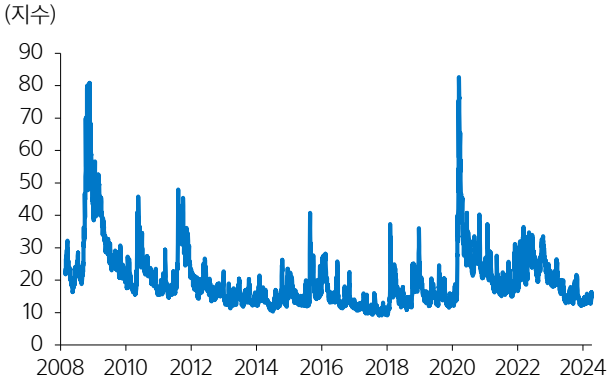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삼성증권

FX Volatilit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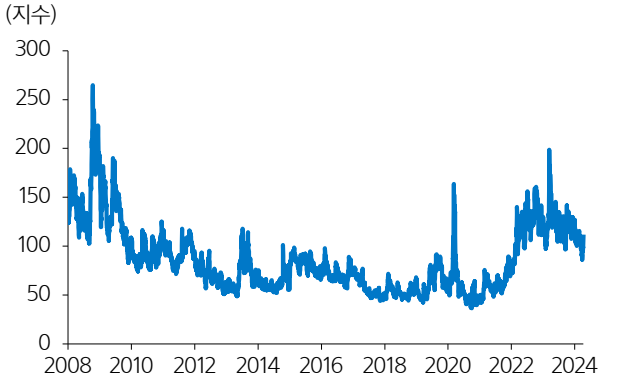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VI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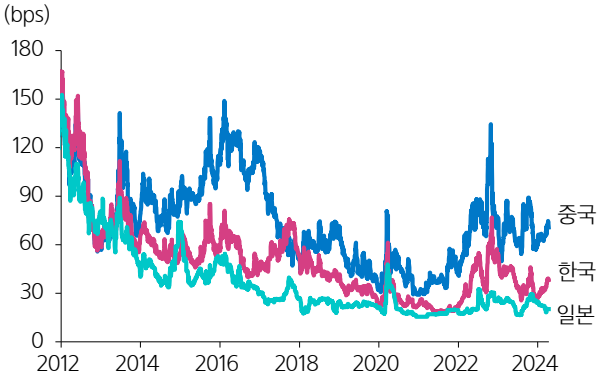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ove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 중국, 일본 CDS premium



참고: 5년물 기준
자료: Refinitiv

신흥국 CDS와 미국 하이일드 채권 스프레드

참고: S&P Global EM CDX 구성국 중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 제외, 각국 CDS를 명목 GDP로 가중평균 하였음. 2022년 3월부터 러시아 제외
자료: Refinitiv, Bloomberg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